

#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조사 연구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Fire-fighting Officers for the Establishment and Revitalization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Young-Son Bae<sup>a,1</sup>, Won-Hoi Koo<sup>b,2</sup>, Ho-Joon Shin<sup>c,3</sup>, Min-Ho Baek<sup>d,\*</sup>

*a Seoul Emergency Operations Center, 26ga-gil 6, Toegy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b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blems in the domest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ystem, relevant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argeting fire-fighting officers in the front line of the disaster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the measures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and the contents of the measures are as follows. In order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item.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the coordin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properly and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and delivered smoothly.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the improvement is required to prevent any miscommunications in the coordination and joint operation plan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agency. Also, in the aspect of system, the equipment should be maintained and updated continuously in order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disasters and the organization, laws, institutions and system should be improved systematically and harmoniously. And, the detailed measures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disaster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in details and the detailed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ituation management system in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unification of situation roo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 KEYWORDS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Fire-Fighting  
Officer  
The Awareness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전달이 원활해야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되 협조상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기관별 협업을 통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 측면으로는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하고 조직, 법·제도, 시스템 등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국내에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등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통합재난관리체계  
소방공무원  
의식조사

© 2014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3-540-3134, Email. bmh@kangwon.ac.kr

1 Tel. 82-10-7279-0582. Email. neilbae74@gmail.com

2 Tel. 82-10-9163-7228. Email. shj@kangwon.ac.kr

3 Tel. 82-10-9771-3721. Email. kwh@kangwon.ac.kr

### ARTICLE HISTORY

Received Mar. 08, 2014

Revised Mar. 21, 2014

Accepted Mar. 30, 2014

## 1. 서론

우리나라는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난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더욱더 다양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분산재난관리방식으로 대응해왔으나 2003년 태풍 매미,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2004년부터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대형 재난에 대응 및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는 아직까지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첫째, 현 재난관리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재난현장 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2. 국내 재난관리체계 현황 검토

### 2.1 국내 재난관리 조직 현황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농업, 어업 등 1~2차 산업 중심으로 인해 자연재난 및 화재 외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부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난관리 조직이 확대, 축소를 반복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재난관리 관련부처별로 살펴보면 내무부, 국토건설청, 건설부, 내무부, 행정자치부를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에 이르게 되었으며 많은 변화가 존재하였다. 특히 2004년 당시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확대 개편되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사후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 현재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면서 과거보다 더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며 정부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현재 재난관리체계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국가의 종합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2004년 3월 11일)으로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다. 또한 2008년 2월에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재난안전실을 설치하여 소방방재청과 함께 운영중에 있다.

### 2.2 국내 재난관리 관련 법 현황

우리나라 재난관리 관련 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관련 법들이 각각의 개별법으로 존재하였다. 1961년에 「하천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 등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개별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개별법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률 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법률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다양한 법률을 통합하기 위해 내무부에서는 19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자연재난을 통합하기 위해 풍수해대책법을 1995년 12월 6일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 이후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풍 매미 등 지속적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야기되었다 또한 재난의 특성상 통합적인 재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재난 관련 법률이 통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고 재난의 개념에 인적 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포함하면서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원화된 재난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최근 2013년 도에는 신정부가 들어서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확대 개정되는 듯 끊임없는 국가적 관심과 활동이 실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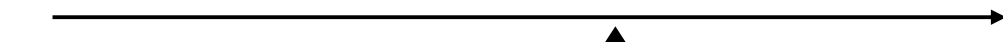
### 2.3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

재난관리는 재난유형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발생원인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분산관리방식과 재난 관리의 종합성과 통합성의 관점에서 모든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산재난관리방식은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로서 재난계획과 대응 책임기관도 각각 다르게 배정되는 관리방식이다. 이는 재난의 유형별 특징을 강조하며, 지진, 수해, 유독물, 설해, 화재 등 재난의 유형에 따라 대응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재난종류별 분산대응계획이 준비되고 해당 책임기관과 조직도 별도로 각기 배정된다. 이로 인해 재난예방 및 완화, 대, 대응조치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국가정책의 결여로 전체적인 재난관리능력을 떨어지며 유사기관간의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기관간의 조정, 통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도 발생하며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 유사하며, 재난유형별 재난 계획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응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제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통합재난관리방식은 각 재난마다 마련된 개별긴급대응책과 개별공적 활동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이 지진대책과 수해대책, 유독물 누출, 풍수해나 설해 등 재난의 종류에 상응하여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재난관리방식은 이를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예방 및 완화·대비·대응·수습 및 복구에 걸친 대책을 일체적 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종민, 2008, p.19) 통합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발생 시 총괄적 자원 동원과 신속한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걸쳐서 자원준비, 대비계획, 대응활동의 유사성의 이점을 취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소방방재청 개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수준만큼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산재난관리방식도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실정이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Distributed Disaster Management Method and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Method

구분	분산재난관리 방식	통합재난관리 방식
역사적 배경	1930년대 ~ 2003년 전통적 재난관리 방식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정 및 소방방재청 설립이후
특징 및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부처 및 기관의 단순병렬</li> <li>- 재난 유형별 관리</li> <li>- 정보전달의 다원화</li> <li>-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부담이 분산됨</li> <li>- 소관부처에서 해당 재해만으로 담당하므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이 향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휘체계의 단일화</li> <li>- 단일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부처 및 기관</li> <li>-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조정, 통제 및 지휘체계를 가짐</li> <li>- 모든 재난은 계획,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서 유사함</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응기관의 중복성</li> <li>- 과잉대응 및 지휘체계의 분산 발생</li> <li>-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li> <li>-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li> <li>- 각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 미흡</li> <li>- 자원준비와 배분의 복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과 과도한 부담</li> <li>- 부처 이기주의 및 기존조직들의 반대가능성이 높음</li> </ul>
관련부처(기관)의 수	다수 부처(기관)	소수 부처(기관)
책임성	책임의 분산	과도한 책임(부담)
활동범위	특정 재난	모든 재난
정보의 전달(지휘체계)	다양화	단일화
제도적 장치(관리체계)	복잡	보다 간편
재난관리현 위치		
	2004년부터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분산관리체계와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출처 : 김진원, 김중구, 백민호, 우성천, 최기봉, 홍영호, 재난관리론, 동화기술, 2012

## 2.4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한계점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 및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난 발생에 따른 측면별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직 간의 이질성, 기관별 정보교환 협조체계 미흡, 조직간 정보전달체계 미흡, 현장지휘체계의 미정립, 부족한 인력 및 예산 중복,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 독자적인 자원관리, 재난유형별 관리의 Gap 발생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법/제도적 측면의 한계점이다. 재난 관련 법령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러한 법령을 통합하기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관련 법령에 대한 소관 부처마다 그 관할 법령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산불 발생시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소방관서 등을 협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산불(산림화재)을 인적재난의 한 부분으로 관리함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하여 지휘·통제하고, 산림청 등을 지원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재난에 따라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기관별 협조체계를 구축할 경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하나의 재난대책 및 업무에 대하여 중복해서 또는 다른 법령에 나누어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난에 대하여 여러 법령으로 정부 감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개별 법령에서 수습과 보상의 사후 관리 책임은 없으며 재난에 대하여 세부 분야별로만 접근하여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는 미흡하다.

셋째, 시스템 측면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있으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이는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 업무지원시스템과 기상청,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의 재난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119 소방현장대응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해야하며 업데이트도 시행해야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공유체계가 부족하고 조직별 다양한 정보환경과 표준이 미흡하며 기술추세에 뒤떨어지고 낙후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보강신설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구축되거나 구축 계획 중인 다양한 정보환경을 분석하여 인프라 및 시스템 상호 활용성을 파악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맞은 시스템 확대 및 보강작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조직의 부족과 전산 총괄관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넷째, 운영적 측면의 한계점이다. 우리나라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적, 법·제도적, 시스템적 측면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각각의 측면별로 균형적이지 운영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상에서도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 및 기준의 미흡으로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별로 분산관리 된 방재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한곳으로 집결하여 총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별 행해지는 정보 공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과거의 재난 대응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관련 담당자의 업무 형태로 인하여 과거의 재난관리과정에서 잘못된 행동과 절차, 대응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질 수 없어 전문성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 밖에 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예측가능이 어려운 재난이 다양하게 발생하여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적인 재난 및 신종재난이 발생하여 대응역량의 부족으로 피해가 가중화되고 있다.

## 3.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인식조사

### 3.1 조사개요

우리나라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개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재난 시 중앙부처 지휘권을 명확히 규정 등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으나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수준까

1)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개요 참고

지 이르는데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 문제점, 개선 시 필요항목, 구축 및 활성화 시 항목별 필요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재난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의식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 설문조사 및 이메일 수령조사로 진행하였다.

Table 2. Outline of Investigating

구분	내용				
조사목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조사일시	2013년 9월 ~ 11월 (약 3개월)				
조사대상	소방공무원 200명	3년 미만	26명	종합상황실 근무	32명
		3 ~ 5년	26명		
		5 ~ 10년	58명	행정 업무부서 근무	8명
		10 ~ 20년	65명		
		20년 이상	25명	현장 대응부서 근무	160명
조사방법	직접방문 설문조사 및 이메일 수령조사				
조사내용	- 기관별 통합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 -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 항목별 재난관리체계 방식 필요도 -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문제점 - 통합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우선 필요항목				

### 3.2 재난관리체계 운영현황 및 필요도

기관별 통합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200명 중 114명(57%)이 보통이었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51명(25%)으로 현행 기관별 통합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은 비교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관리업무의 통합 및 상호연계의 필요성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0명 중 96명(4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3명(37%)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85%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대부분이 재난관리업무의 통합 및 상호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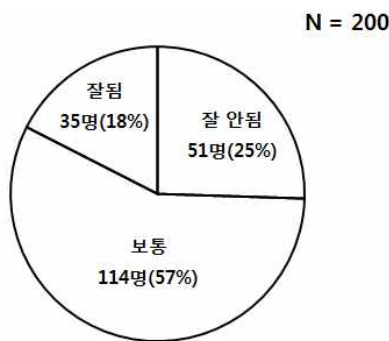


Fig. 1 Present Operation Status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Each Government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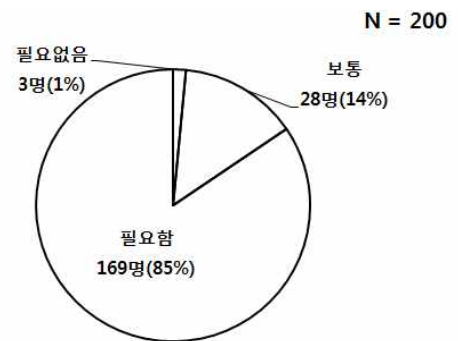


Fig. 2 Need for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 3.3 재난관리체계 방식 선호도

항목별 재난관리체계 방식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조직적, 운영적, 시스템적 4개로 나누어 분산재난관리 방식과 통합재난관리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분산재난관리방식보다 통합재난관리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조직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시스템적, 법·제도적, 운영적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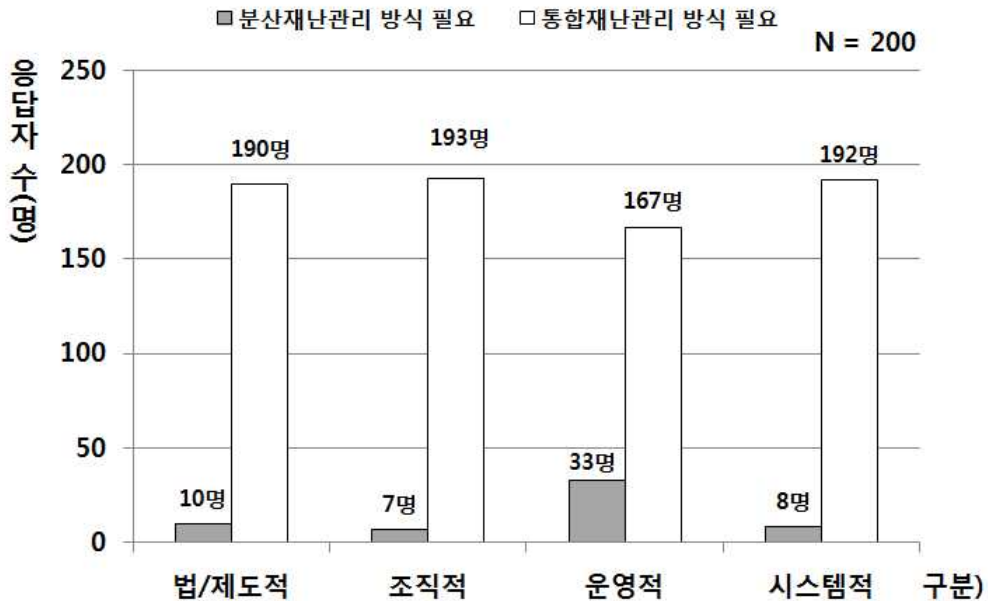


Fig. 3 Level of Necessity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Method for Each Item

### 3.4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의 중복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그 뒤로 이원화된 재난관리체계, 신종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법·제도적 정책 분야, 현장통합 지휘체계의 미정립, 재난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직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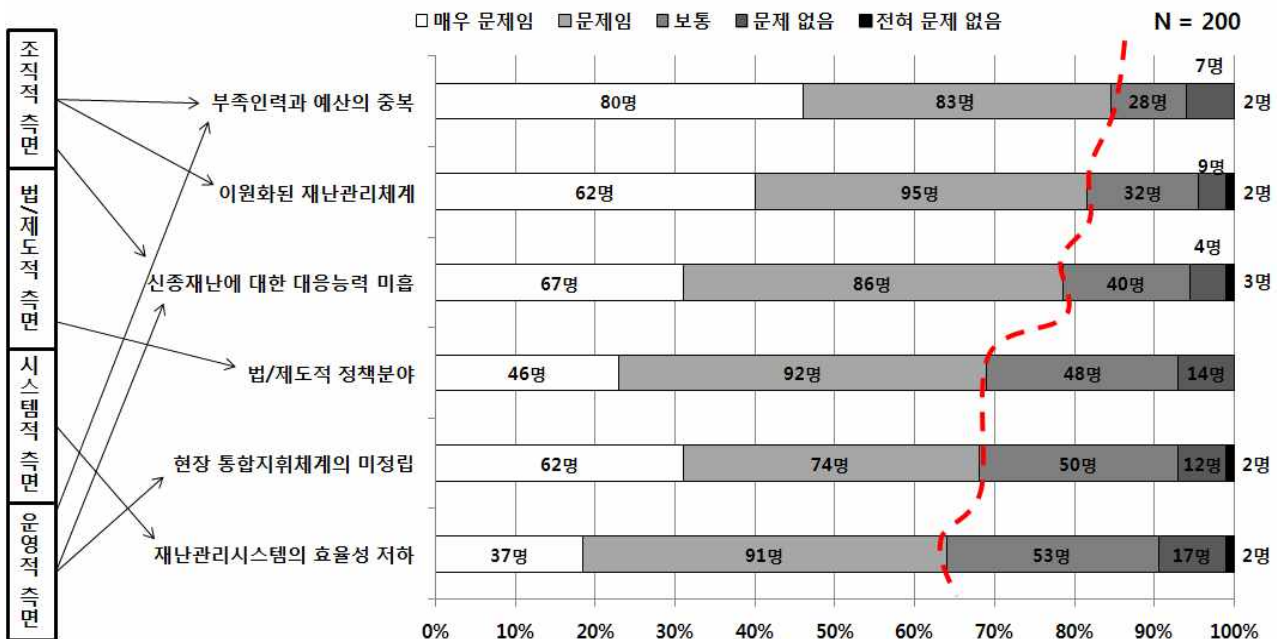


Fig. 4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 3.5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우선 필요항목

통합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필요항목에서는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이 전체 200명 중 67명(3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뒤로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일원화 구축, 법/제도 개선,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확충,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강화, 재난상황 정보공유로 신속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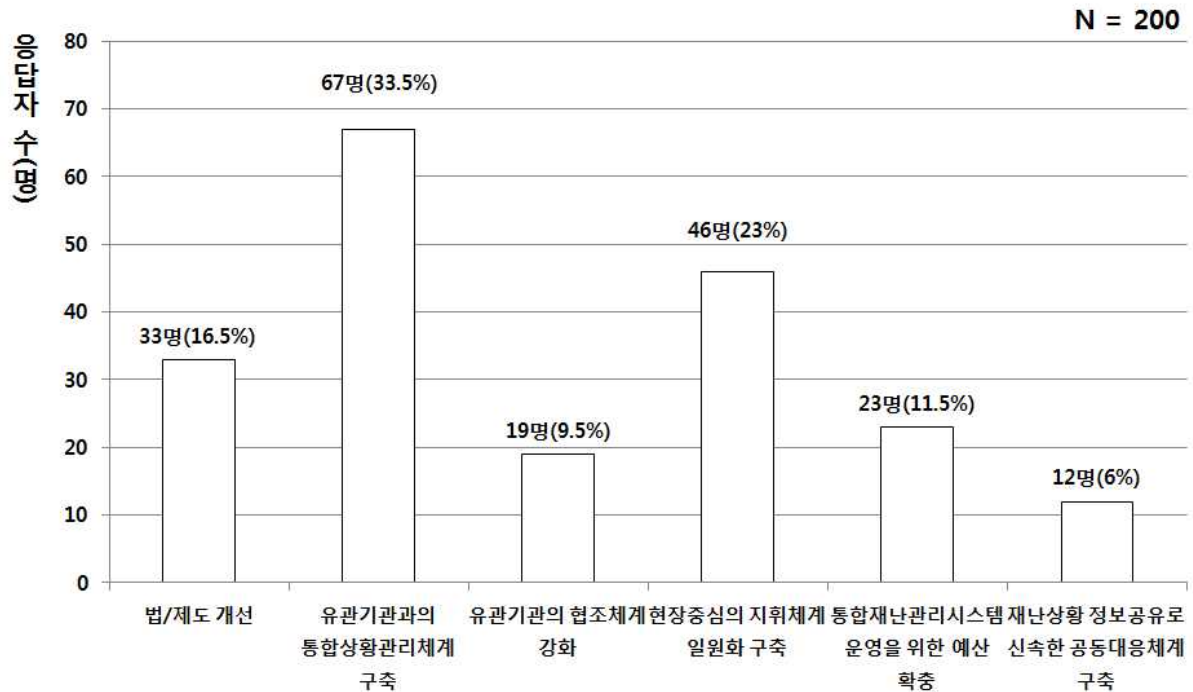


Fig. 5 Priority Item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그 외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은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황실 일원화 방안 모색,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재난관리체계 활성화,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현장협조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유사업무 조직의 통합 실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적합한 시설 도입, 대형재난특성을 고려한 통합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즉, 조직적인 측면에 대한 우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통합재난관리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재난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하나의 기관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다양한 기관이 투입되어 대응을 실시한다. 이에 각기 명령체계, 지휘체계, 이원화된 상황실 설치 등 이해관계 부족으로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정보전달 및 교환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족한 인력과 중복되는 예산으로 인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관별 협업을 통해 현장지휘체계를 개선하고 공동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율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이 충돌하고 있으며 기관별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어 현장대응조직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산,



혼재, 충돌 되고 있는 재난상황관리 관련 법/제도 들을 모두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비효율적 재난관리체계를 초래하는 항목은 개정하여 지휘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 및 매뉴얼 상호간 충돌 또는 혼동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개정 내용 및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재난대응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신버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보강 및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가 필요하며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급속한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기적절하게 보강 및 관리되고 있지 않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재난관리시스템을 저예산으로 지속적인 보강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력 및 조직의 운영, 법/제도의 운영, 시스템의 운영 등 분야별로 균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운영의 불규칙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야별로 균형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예산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현장의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대한 의견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재난관리체계에서 다양한 여건 및 환경으로 인해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수준만큼 구축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유관기관과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법/제도 개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현장협조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유사업무 조직의 통합 실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Y. S. Bae, A Study o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Focused on Seoul Emergency Operations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2014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business redesign of central-local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KRILA Focus No. 48, 2012. 06
- J. W. Kim, J.K. Kim, M.H. Baek, S. C. Woo, K. B. Choi, Y. H. Hong, Disaster Management Theory, Donghwa Technology Publishing, 2012
- M.H. Baek, Y. S. Bae, W. H. Koo, H. J. Shi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Fire Fighters for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Conference, 2014.2.20
- T. H. Kim, Disaster Management Theory, National Institute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2009